

##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한 은 옥<sup>†</sup>                      홍 혜 영<sup>‡</sup>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0세부터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377명을 대상으로 부모화경험 척도,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 자아분화 척도,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으로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부정적 양육행동,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아분화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각각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 시절 과도한 부모화경험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상담적 개입방법을 부모화경험과 자아분화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의 측면에서 모색하고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주요어 : 어머니,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 본 연구는 한은옥(2023)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한은옥,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박사과정

‡ 교신저자: 홍혜영, 명지대학교 대학원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국제관 4715호, Tel: 02-300-0899, E-mail: hyhong@mju.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에릭슨은 인간 발달에 대해 자아(ego)가 주된 관계대상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이루어간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0~1세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로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타인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삶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후 아동기(1~3세), 놀이나이(3~6세), 학교나이(6~12세)까지 부모, 가족, 학교, 이웃 대상을 통해 자율성과, 주도성, 근면성이 발달되며 자기 존재에 대한 기초를 발달시킨다. 이 때 자녀의 일차적인 주요 환경은 부모로서, 부모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호작용 행동으로,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적인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자녀는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행복감과 창의성이 높았으며(나중혜 외, 2021),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문제 행동은 감소시키고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Aunola et al, 2000). 반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 발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현적 공격성, 부적응 행동을 높여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inquart, Kauser, 2018). 또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성과 자존감을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여, 청소년기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였다(김현옥, 김정민, 2015). 학교 나이를 지나 청소년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과 사회적인 압력, 신체적 변화를 맞닥뜨리는데, 이 때에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의 발판이 이전 학교 나이까지

형성된 자기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영, 2015). 때문에 건강한 자기존재감이 형성되는 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특히 자녀의 성장과 발달,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적응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어떤 심리내적 변인을 거쳐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행동의 주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 과거에 비해 부모 모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식의 변화가 활발하다. 그러나 매년 발표되는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3년 25.7%가 남성 육아휴직자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는 자녀의 최초 상호작용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과 생활 습관의 모델링이 되며, 타이거맘, 헬리콥터 맘 등의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과 부담은 더 커졌다고 평가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의 뇌, 신체, 정서,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세상을 탐색하게 하였다(Clark et al, 2018). 또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따뜻하고 일관성있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자기조절력,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Erickson et al, 2019). 학령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로 폭발적으로 인지 발달이 일어나며, 사회적 기술

및 자아개념이 발전되는 때로(윤 황, 2022) 어머니 양육행동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학습동기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행동문제를 예방하였다(Checa et al, 2019). 한편, 윤황(2022)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 발달의 단계는 명백히 구분짓기 보다, 이전 단계와 다음 단계의 행동이 중첩을 거쳐 점차적으로 전형적인 모습을 띠는다고 하며 성장의 연속성 안에서 각 발달 단계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 단계 중, 정서적, 물리적 양육행동이 대폭으로 집중되는 만0세부터 13세까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주요 변인이, 어머니 자신이 어린시절 경험한 양육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권영임(2011)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경험한 양육 방식이 현재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독립적이고 장려적인 양육 경험을 할수록 자녀에게 존중적이고 균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Lotta(2021)의 연구에서도 어린 시절 따뜻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경험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시절 경험한 양육방식이 자신의 자녀 양육행동에 반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린 시절 무관심과 거절, 미비한 정서적 돌봄을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비판적이며, 거부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여(김지원, 2021),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어머니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 양육행동을 형성하는 주요 변인이, 어머니 자신이 어린시

절 경험한 양육행동임을 시사한다.

배성아(2023)는 유자녀 여성의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이 현재의 가정 소진과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하였는데, 부모화(parentification)란 자녀가 성인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의 역할을 떠맡는 ‘역할 역전’을 말한다(Boszormenyi-Negy, Spark, 2013). 부모화경험은 역할 수행 내용에 따라 도구적부모화, 정서적부모화, 불공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구적부모화는 부모의 역할 중 세탁, 청소, 가족 돌보기 등 물리적인 역할과 책임 등을 맡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부모화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보다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중시하며,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가족들의 정서적 중재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공평은 도구적부모화, 정서적부모화를 경험하는 자녀가 자신의 돌봄과 책임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부모화 된 자녀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강선모,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화의 하위 요인 중, 불공평 요인이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홍정희, 2007), 권정숙(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여,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의 심리내적인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행동에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화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부모화경험은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부모화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 자신에 대한 개념과, 발달, 정서표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수치심,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김인영, 2016), 부모화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표현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린시절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교류와 지지 반응을 경험하기 보다, 주어진 역할 수행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부모화 자녀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한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자아분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문제를 높이고(김인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켜 자아분화를 이루기 어렵게 하였다(이지선, 2019). 이는 부모화경험이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의존성을 높여 개인의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는 자아분화 발달이 어렵고,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응적으로 표현하기에도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자아분화란 한 개인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분리와 독립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심리적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김희주(2020)는 부모화경험이 높은 자녀일수록 자아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며, 부모화경험이 자녀의 개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심리적 표상들을 분열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학대적, 자기애적 성격장애 방식을 발달시킨다는 대상관계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면서도, 그 욕구를 억제하며 갈등하고, 표현된 정서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Emmons & Colby, 1995). 문소희(2014)의 연구에서,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기에까지 정서표현

과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가 가진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자아분화는 개인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조절하는 영향도 미치는데, 자아분화가 높은 개인이 양가적인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였으며, 반대로 자아분화가 낮은 개인은 정서적인 갈등을 더 경험하여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으로 대처하였다(Peleg et al, 2024). 또 어머니의 자아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 자신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은 낮았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게 나타났다(이유나, 성승연, 2022). 이는 높은 자아분화가 어머니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잘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아분화는 자녀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Bowen(1978)은 부모의 건강한 자아분화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감정적인 반응을 덜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율성, 친밀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분화가 높은 어머니가 양육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켜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Mozas-Alonso et al, 2022).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분화가 낮은 어머니들은 양육 상황에서 자녀를 ‘또 다른 나’로 여기며 통제와 과보호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였고,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이룬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김희경, 이완정, 2022).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친밀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

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고, 어머니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비애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Zeytinoglu et al, 2017). 반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분화가 높은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긍정적 양육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을 한 개인은 건강한 자아분화를 형성하기 어렵고,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과 억압의 양가적인 대처를 하게 되어, 어머니가 된 양육 상황에서도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시절 부모화를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의 정서적, 관계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적인 행동 특성이 아닌 개인의 내적 변인에 초점을 둔 개입 방향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부정적 양육행동 각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

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각각의 단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이중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0세에서 만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총 420명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녀의 청소년기는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 학습적 요구가 일어나고,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이전 단계까지 발달된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탐색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데, 이와 같은 자녀 발달은 부모 양육행동에 변화를 요구한다. Duvall의 가족발달 주기에서도 청소년기 자녀 단계의 경우,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 반항심이 증가되어, 부모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박태영, 2022).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유아기부터 학령기, 청소년기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에릭슨은 유아기를 심리사회적인 발달의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고, 학교나이 즉 초등학교시기를 자아가 성장하는 결정적인 단계로 보아, 0세부터 13세 자녀를 둔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표집은 Google 온라인설문(332부)과 서울, 경기 소재 어머니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82부) 수집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377)

구분	N	%	
나이	20대	6	1.6
	30대	185	49.1
	40대	174	46.2
	50대 이상	12	3.2
형제관계	외동	27	7.2
	말이	163	43.2
	중간(3명이상)	84	22.3
	막내	103	27.3
결혼기간	5년 미만	72	19.1
	5년이상~10년 미만	110	29.2
	10년이상~15년 미만	148	39.3
	15년이상~20년 미만	37	9.8
	20년 이상	10	2.7
자녀수 (0세~13세)	1명	208	55.2
	2명	147	39.0
	3명	20	5.3
	4명 이상	2	0.5
자녀 연령 (다자녀인 경우 중복 전체 504명)	만0세~3세	145	28.8
	만4세~6세	133	26.4
	만7세~9세	82	16.3
	만10세~13세	144	28.6
육아 돌봄 지원	없음	258	68.4
	친정 부모님	77	20.4
	시부모님	27	7.2
	친정가족	5	1.3
	시댁가족	1	0.3
	가사/육아도우미	7	1.9
	지인/이웃	2	0.5
학력	고졸 이하	43	11.4
	초대졸	64	17.0
	대졸	199	52.8
	대학원졸	71	18.8
	총계	377	100

익명성 보장, 자료의 보관 폐기에 대해 설명하였고, 서면 동의를 득한 설문지만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420부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무응답 및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대상이 아닌 43부를 제외하여, 온라인설문(296부)과 직접설문(81부) 총 37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185명(49.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6명(1.6%)으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의 출생 순위는 맏이 163명(43.2%)이 가장 많았고, 외동이 27명(7.2%)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 기간은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48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이 10명(2.7%)으로 가장 적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199명(52.8%)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43명(11.4%)으로 가장 적었다. 만 0세에서 만13세 자녀의 수는 1명이 208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4명 이상이 2명(0.5%)으로 가장 적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만0세~3세가 145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만 7세~9세가 82명(16.3%)으로 가장 적었다. 0세~13세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대상은 자녀수에 따라 자녀 연령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46명의 대상자는 자녀 연령 선택을 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배우자 외에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자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돌봄 지원 없음이 25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시댁가족이 1명(0.3%)으로 가장 적었다.

#### 측정 도구

##### 부모화경험

부모화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urkovic (1998)의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바탕으로 다차원 분석을

진행한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화경험 척도는 과거 부모화경험 30문항, 현재 부모화경험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부모화경험에 대한 문항 중, 낮은 신뢰도를 보인 3문항을 제외하고, 조혜정(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화경험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신뢰도의 경우 조혜정(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전체 값은 .90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부모화요인 .78, 정서적부모화요인 .84, 불공평요인 .89로 나타났다.

##### 부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a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Schaefer의 양육행동은 애정적, 자율적 태도로 구성된 긍정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통제적 태도로 구성된 부정적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하여, 긍정적 문항은 제외한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2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하위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성숙, 이지연(20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전체 값은 .79 였고, 거부적 태도 .81, 통제적 태도 .65 로 나타났다.

### 자아분화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석봉(1989)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 척도는 인지적기능 대 정서적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문항이다. 본 척도의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4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90이었으며, 김보미(2021)의 Cronbach's  $\alpha$  .90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전체 값은 .90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정서적기능 .78, 자아통합 .61, 가족투사 .87, 정서적 단절 .82, 가족퇴행 .92 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갈등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척도(AEQ-K)를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14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10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의 경우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전체

값은 .92 로 나타났으며, 자기방어적요인 .92, 관계관여적요인 .78 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5.0과 AMOS 28.0을 이용하였다. 먼저 수집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량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때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부정적 양육행동 각 변인의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많아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제한된 표본 안에서 미지수 추정 시 많은 추정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는 변인 간 문항의 특성과 수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방정식에 따른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문항 묶음이 자료의 비정규성을 낮추고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이지현, 김수영, 2016) 따라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진행하였다. 문항의 묶음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부하량에 따라 모든 문항의 특성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추정의 안정성, 정확성, 모형 적합도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사용하였다. 잠재변인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부정적 양육행동 모두 각각 3개씩 측정변수의 하위요인으로 문항 묶음을 진행하였다. 잠재변인과 요인분석 진행 시, 측정변수가 3개 미만일 경우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잠재변인 별 3개의 측정 요인으로 구성하되 요인 부하량의 평균값이 비슷하도록 배치한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후,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부모화경험,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고,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접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결 과

###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규분포의 기준에 해당하는 왜도는 절대 값이 2보다 작아야 하며, 첨도의 절대 값은 7보다 작아야 한다. 주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2보다 작고 첨도가 7보다 작으므로 연구변인들이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에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고, 부모화경험은 종속변인인 부정적양육행동( $r=.499, p<.01$ )과 정서표현양가성( $r=.518, p<.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첫 번째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r=-.629, p<.0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377)

변인	M	SD	왜도	첨도
부모화경험	2.33	.63	.380	-.140
자아분화	2.92	.37	-.118	-.493
정서표현양가성	2.97	.58	-.182	.010
부정적 양육행동	2.93	.40	-.101	-.098

표 3. 주요 변인들간 상관계수

변인	1	2	3	4
1. 부모화경험	1			
2. 자아분화	-.629**	1		
3. 정서표현양가성	.518**	-.548**	1	
4. 부정적 양육행동	.499**	-.482**	.537**	1

\*\* $p < .01$

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와 종속변인인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 $r=-.482, p<.01$ )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 $r=.537, p<.0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와 두 번째 매개변인인 정서표현양가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부적 상관( $r=-.548, p<.0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AMOS 28.0 프로그램으로 잠재변인과 측정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50~.95, 측정변인의 유의성(C.R.)이 1.96이상 일 경우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 모형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의 값은, 부모화경험 .833~.937, 부정적 양육행동은 .82~.927, 자아분화는 .677~.801, 정서표현양가성은 .724~.95로 나타났다. 모두 유의수준( $p<.001$ )으로 유의성(C.R) 값은 12.552~27.297까지 1.96이상으

로 확인되어 그림 1과 표 4와 같이 측정모형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적합도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상대적합도 지수인(Relative fit) TLI(Tucker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152.360(p<.01)$ ,  $df=48$ ,  $TLI=.956$ ,  $CFI=.968$ ,  $RMSEA=.076$ 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부정적 양육행동간의 경로를 확인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에(  $-.688, p<.001$ )로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에(  $-.313, p<.0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부모화경험이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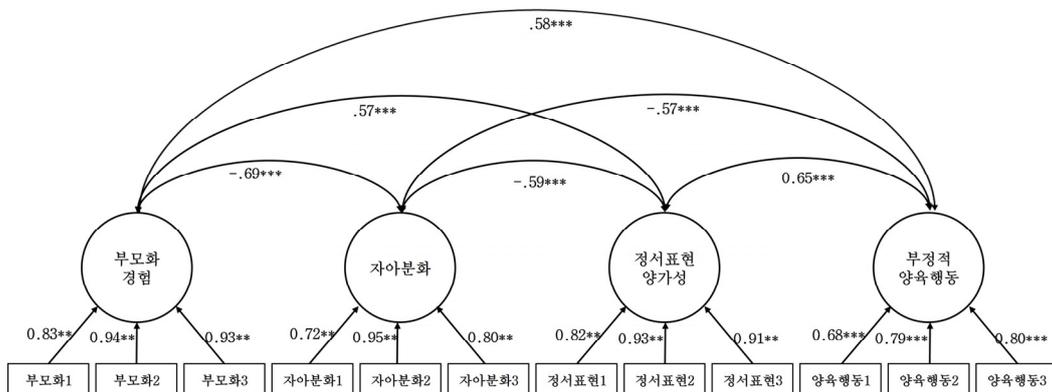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한은옥 · 홍혜영 /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N=377)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부모화경험	부모화경험 1	1	0.833		
	부모화경험 2	1.09	0.937	0.046	23.899**
	부모화경험 3	1.225	0.925	0.052	23.515**
자아분화	자아분화 1	1	0.724		
	자아분화 2	1.456	0.95	0.085	17.081**
	자아분화 3	1.278	0.801	0.084	15.297**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 1	1	0.909		
	정서표현양가성 2	0.939	0.927	0.034	27.297**
	정서표현양가성 3	0.752	0.82	0.035	21.734***
부정적양육행동	부정적양육행동 1	1	0.801		
	부정적양육행동 2	0.86	0.79	0.06	14.376***
	부정적양육행동 3	0.732	0.677	0.058	12.552***

\*\* $p < .01$ , \*\*\* $p < .001$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N=377)

$\chi^2$	df	TLI	CFI	RMSEA (95% CI)
152.360	48	.956	.968	.076 (.063~.090)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t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347	-.688***	.003	-11.48
부모화경험 → 정서표현양가성	.347	.313***	.074	4.691
부모화경험 → 부정적양육행동	.163	.222**	.052	3.113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821	-.373***	.151	-5.427
자아분화 → 부정적양육행동	-.261	-.179*	.107	-2.437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275	.414***	.043	6.412

\* $p < .05$ , \*\* $p < .01$ , \*\*\* $p < .001$

적 양육행동에(  $\beta = .222, p < .01$ )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낮아지며,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분화는 정서표현양가성에(  $\beta = -.373, p < .001$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양육행동에(  $\beta = -.179, p < .05$ )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표현양가성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beta = .414, p < .001$ )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매개효과 검증

연구에서 제시한 각각의 잠재변인들 간 직

접경로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실시하였고, 표본(N=377)으로부터 5,000개의 무선표집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결과 값은 영가설에서 설정한 매개효과 추정치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하며, 0을 포함하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정서표현양가성에 이르는 간접효과 경로(  $\beta = .257, CI: .162 \sim .364$ )는 정적으로 95% 신뢰구간(CI)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아분화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

표 7. 연구모형의 개별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총 효과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688*** (-.749~-.618)		-.688*** (-.749~-.618)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313*** (.171~.447)	.257*** (.162~.364)	.569*** (.485~.646)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 부정적양육행동 정서표현양가성	.222** (.083~.355)	.359*** (.265~.466)	.581*** (.490~.657)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373*** (-.512~-.239)		-.373*** (-.512~-.239)
자아분화	→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179* (-.326~-.030)	-.155*** (-.236~-.094)	-.333*** (-.481~-.189)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414*** (.304~.516)		.414*** (.304~.516)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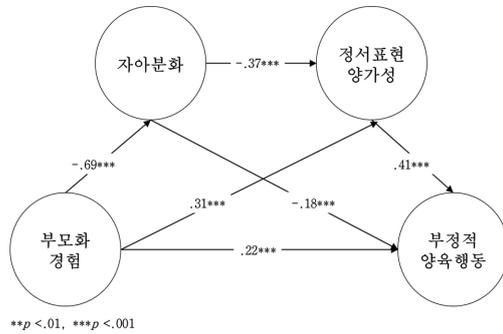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부정적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 모형

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 =-.155, CI: -.236~-.094)는 부적으로 95% 신뢰구간(CI)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지닌 개별 간접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확인은 어려움이 있어, AMOS에서는 모형적합도와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하여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

을 분석하였다. 팬텀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검증은 표준화계수는 계산되지 않고 비표준화계수로 계산되어 비표준화계수를 제시하였으며,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 =.091, CI: .17~.172,  $p < .05$ )와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 =.095, CI: .05~.155,  $p < .01$ )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을 매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르는 경로( =.078, CI: .46~.129,  $p < .01$ )도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를 낮추고 나아가 정서표현양가성은 높여 부정적 양육행동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표 8.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Estimate (B)	S.E	95% CI	
			Lower	Upper
1.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 부정적양육행동	.091*	.039	.017	.172
2. 부모화경험 →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095**	.026	.05	.155
3. 부모화경험 → 자아분화 정서표현양가성 → 부정적양육행동	.078**	.020	.046	.129

\* $p < .05$ , \*\* $p < .01$ , \*\*\* $p < .001$

## 논 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심리내적 요인인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어린시절 가족 체계 안에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역할 반전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Nuttall et al, 2021). 또한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은 자아분화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 의존성을 높여 개인의 자아분화 발달을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자아분화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켜 개별화를 이루기 어렵게 하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이지선, 2019; 김인영, 2016). 또한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부모화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서표현양가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정호연, 2018). 이는 부모화경험이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타인과의 관계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감정 인식, 정서

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와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화된 개인이 명확한 자기 정체성 인식으로, 자신과는 다른 자녀의 필요를 이해하고 갈등 해결 방식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자아분화를 이룬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켜 긍정적 정서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Mozas-Alonso et al, 2022).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압하여 양육상황에서 과도하게 통제하고 비지지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양육행동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Zeytinoglu et al, 2017).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개인의 미분화가 외부 상황에 대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 타인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회피나 억압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분화가 낮은 개인이 정서표현에 있어서 양가적으로 대처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Peleg et al, 2024).

둘째,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각각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경험은 자아분화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며, 낮은 자아분화가 부정적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는 부모화경험이 발달과정의 자녀에게 과도한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분화된 자녀는 자아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양육의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의 요구에 권위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다 (Zhao et al, 2023). Jankowski et al(2013)은 어린 시절 부모화경험이 성인기의 미분화와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부모화 자녀의 미분화된 심리내적 요인이 성인기 자신의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정서를 표현한 후 갈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대인관계에서 불안감을 유발하고, 관계 만족도를 낮춘다는 선행연구는(Wang et al, 2022) 정서표현양가성이 개인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짐작케 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자녀에게 부모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 신뢰로운 관계형성과 심리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으로 대처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였다. 즉, 어머니의 과거 부모화경험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자아분화수준이 감소되고, 낮은 자아분

화는 적응적인 정서표현을 방해하여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서 살펴본, 부모화경험이 개인의 분리와 개별화, 즉 자아분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아분화가 정서표현양가성을 높여, 부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 나타난 순차적 매개효과는 어린시절 가족 내에서 부적응적인 역할반전을 경험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내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시절에 부모를 대신해 가족을 보살피는 부모화경험이, 자아분화의 발달 수행을 낮추고, 정서표현에 갈등과 억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시절 높은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적응적인 정서표현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낮추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국내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정서적 부모역량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아분화를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통제집단 대비 실험집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증가되었으며(조형숙, 김명하, 2013), 최연하(2020)는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APT(Active Parenting Today)로 통제집단 대비 실험집단의 자아분화의 증가와 부정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 박근아, 유금란(2023)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양가적인 정서표현을 보이는 개인의 적응적인 정서표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개입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이중매개효과는 과거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다수의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며,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

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부모화를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먼저 어머니의 건강한 자아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Bowen은 가족 구조안에서 역할과 경계에 대한 갈등, 즉 삼각화를 경험한 자녀가 개별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합리적인 사고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시절 부모를 통해 적절한 개별화와 연합을 이룰 수 없었던 어머니를 위한 교육적, 가족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원가족 안에서의 자기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모와 가족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역할 인식,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정서표현,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족 내에서는 정서적인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양방향적인 의사소통 방식 등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자아분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볼 수 있다. 미분화는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과민하고 관계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적절한 감정적 거리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 조절하며 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험과 사고, 정서간의 일치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표현양가성의 선행 요인에, 정서표현에 대한 결과를 부정적으

로 예견하는 정서표현신념을 주목한다. 이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그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정서를 조절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서표현 불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이 미비하고, 자신의 희망이나 감정상태, 느낌과 신체감각 등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나은혜, 2019). 이와 같은 정서표현에 대한 다양한 개념은 적응적인 정서표현의 중요성과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상담자는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이는 어머니의 정서에 밀착하여 접촉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통합적인 정서표현과정을 적용한 정서표현 훈련 프로그램은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경험을 한 어머니가 표현하는 정서표현의 특성이, 개인이 가진 정서에 대한 내적 신념, 가치관에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성이 어떠한 자극과 정서처리의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양육상황에서 형식적인 공감과 위로가 아닌, 내담자의 심리 내적인 정서표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자아분화 수준의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갈등 없이 표현하여, 양육의 장면에서도 스트레스가 적었다는 선행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 강화를 위해 자아분화와 적응적인 정서표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감소를 위해서 어머니 자신의 어린시절 부모화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이라는 심리내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이전 선행연구들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간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으며, 부모화를 경험한 어머니들의 미분화와 양가적 정서표현까지의 과정 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심리적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을 보인다. 연구 대상을 만 0세에서 만 13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제한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어머니 전체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 폭 넓은 표집이 가능하도록 확장시켜 동일한 결과나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자기보고식 방식을 통해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 방어적으로 응하였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대상으로부터 실제 측정하고자 했던 변인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과거에 경험했던 부모화에 대해 측정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응답자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자료로 수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거 부모화경험에 대해 종단적인 연구 접근을 통한 검증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화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내적 변인으

로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을 살펴보았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체계로 인해 부모화경험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자아분화와 정서표현양가성 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변인들을 파악하여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인과 관계와 매개효과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부모화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모화경험은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강선모, 2015).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부모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불공평 요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 영향을 보고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부모화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찾아볼 수 있다(Burton et al. 2018). 본 연구는 부모화경험의 하위요인인 도구적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요인을 모두를 포함한 단일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추후 부모화경험의 각 하위 유형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정적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 중 통제적 양육행동이 .65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이론적, 내용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수준은 탐색적 연구로서 수용 가능하나(Hair et al., 2010),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도 향상을 위한 문항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부정적 양육행동과 자아분화의 척도는 개발된 시점이 34~40년 된 척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

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분화를 측정하는데 시대적 변화의 반영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행동과 자아분화에 대한 현대적 접근과 척도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2000).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23(2), 205-22.
- Bae, Sung-ah, & Choi, Hyun-ju. (2023).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m,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housework burnout in women with childre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13), 797-809.
- Boszormenyi-Nazy, I., & Spark, G. M. (2013). *Invisible Loyalties*. New York: Routledge.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iggs-Gowan, M. J., & Carter, A. (2008). Social-emotional screening status in early childhood predicts elementary school outcomes. *Pediatrics*, 121, 957-962.
- Burton, Shelby, Hooper, Lisa M, Tomek, Sara, Cauley, Bridget, Washington, Ahmad, Pössel, & Patric.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well-be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 4044-4059.
- Checa, P., Abundis-Gutiérrez, A., Pérez-Dueñas, C., & Fernández-Parra, A. (2019). Influence of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 and behavior problems on academic outcomes in primary school. *Frontiers in Psychology*, 10.
- Cheong, Ho-yeon.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by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5), 185-211.
- Cho, A., & Lee, S. (2018). Exploring effects of childhood parentification on adult-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5(4), 801-813.
- Cho, Hyung-Sook, & Kim, Myung-Ha. (2013). A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effects of a program increasing emotional parenting competency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3). 271-293.
- Choi, Hae-Youn, & Min, Kyung-Whan. (2007). The study on the validation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Comparison of suppression constructs in Korean cultur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4), 71-89.
- Choi, Mee-hye. (2016). The effects of neglectful · abusive rearing styles of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 children: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59-92.
- Choi, Yeon-Hwa. (2020). Influence of APT parent

- education program on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ing styles of woma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7(2), 61-88.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 Erickson, N., Julian, M. M., & Muzik, M. (2019). Perinatal depression, PTSD, and trauma: Impact on mother - infant attachment and interventions to mitigate the transmission of risk.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31, 245-263.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earson Prentice Hall.
- Hong, Jung-hee.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arentification on women's later parenting*. Major in Child Psychotherapy,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kowski, P. J., Hooper, L. M., Sandage, S. J., & Hannah, N. J. (2013). Parentification and mental health symptoms: Mediator effects of perceived unfairnes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Journal of Family Therapy*, 35(1), 43-65.
- Je, Seok-Bong.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focusing on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Jo, Hye-Jung. (2013).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f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and stres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Yeungnam, Korea.
- Jurkovic, G. J. (1998). Destructive parentification in famili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L. L'Abate (Ed.) *Family psychopathology: The relational roots of dysfunctional behavior*.
- Kang, Sun-Mo. (2013).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fication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sham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6), 3409-3431.
- Kang, Sun-Mo. (2015). Empathy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1), 265-283.
- Ki, Seong-Suk, & Ji yeon Lee. (2020). The marital conflict, child-rearing stress, and job stress, impact o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10(1), 21-36.
- Kim, Bo-mi. (2022).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early adulthood.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11(1), 253-275.
- Kim, Hee-Kyung, & Lee, Wan-Jeong. (2022). Dual-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intim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6(4), 543-562.
- Kim, In-Yeong. (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Kim, Ji-Won, & Kim, Sang-ok. (2021). The effects mothers family-of-origin attachment experience on a child s problem behavior: Mediated effect of rearing attitude of moth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5(3), 161-184.
- Kim, Mi-Young. (2015). Ericsson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Human Review.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2), 27-42
- Kim, Myeong-Sook, & Oh, Hyun-Sook. (2015). The relation among mother's temperament,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 and child's characte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4), 513-530.
- Kim, Hyun-Wook, & Kim, Joung Min. (2015). The effects of parenting, friend-relationship factor on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for school aged Students(Elementary-middle-high school).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1), 291-310.
- Kwon, Young-Ihm. (2011). A study on how a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s affected by her childhood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85-96.
- Kwon, Jeong-Suk., & Cho, Yong-Joo. (2019).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fication and overprotection experience on parenting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9(4), 421-443. 181-200.
- Lah, Eun-Hye. (2019). A conceptual study on emotion and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Counseling Education Research*, 2(2), 1-27.
- Lee, Ji-Seon, & Kim, Jung-Min. (2019).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children`s parentification on their internalized problems between multicultural and mono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elf-differenti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2), 39-56.
- Lee, Ji-Hyun, & Kim, Su-Young. (2016). Item parceling: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2), 327-353.
- Lee, Yoo-Na, & Sung, Seoung-Yun. (2022). The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al stres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2), 1981-1996.
- Lee, Won-Yuon. (1998). A study on korea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in relation to the psychology of koreans. *The Journal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13, 1-18.
- Lotto, C., Altafim, E., & Linhares, M. (2021). Maternal history of childhood adversities and later negative parenting: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4, 662-683.
- Moon, So-Hee, Yoo, Soon-Hwa, & Yun, Kyung-Mi. (2014).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fication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6(3).
- Mozas-Alonso, M., Oliver, J., & Berástegui, A. (2022).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ts

- relationship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yles in a Spanish sample of adolescents' parents. *PLoS ONE*, 17.
- Nuttall, Amy K., Ballinger, Alexandra L, Levendosky, Alytia A, & Borkowski, John G. (2021). Maternal parentification history impacts evaluative cognitions about self, parenting, and chil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2(3), 315-330. 16p. 5 Charts.
- Park, Geun-A, Yu, Kum-lan.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lonel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4), 29-42.
- Park, Tai-Young. (2022). *Family therapy theories and practice*. Seoul: Hakjisa.
- Peleg, O., Idan, M., & Katz, R. (202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nge eating and differentiation of self: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distress and work stress*. *Frontiers in Nutrition*, 11.
- Pinquart, M., & Kauser, R. (2018). Do the associations of parenting styles with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vary by culture? Results from a meta-analysi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4(1), 75-100.
- Rha, Jong-hay, & Son, Seung-hee, & Kim, Soo-jung. (2021).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happiness and creativit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0(2), 227-239.
- Shin, Jeong Kim, & Young Hee Kim. (2007). Review about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0(2), pp. 172-181.
- Wang, Y., Zheng, Z., Wang, X., & Li, Y. (2022). Unraveling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subjective wellbeing in Chinese college students in romantic relationships: A multiple mediation model. *Frontiers in Psychiatry*, 13.
- Yun, Hwang. (2022). Understanding cognitive and moral development through genetic epistemology. *Journal of human studies*. 47, 79-106.
- Zhao, J., Zhao, H., & Zhou, A. (2023).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psychological crisis in adolescents: Testing a moderated mediating model of school connectedness and self-esteem. *Behavioral Sciences*, 13.
- Zeytinoglu, S., Calkins, S., Swinger, M., & Leerkes, E. (2017). Pathways from Maternal effortful control to child self-regulation: The role of maternal emotional suppor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 170-180.
- 1차원고접수 : 2025. 04. 18.  
심사통과접수 : 2025. 06. 05.  
최종원고접수 : 2025. 06. 30.

##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fication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Eun-Ok Han

Hye-young Hong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fication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e participant were 377 mothers with children from 0-13 years old and completed the self-report survey of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Negative parenting behavior,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5.0, and structural models and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AMOS 28.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mother's parentificati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emonstrat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lf-differentiation showing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respectively.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which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mediating rol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parentification experience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find and present counseling intervention methods for clients who have difficulty raising children due to excessive parentalization experiences in childhood in terms of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other, parentification, self-differentiati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behavior, negative parenting behavior